

베니스에서 댕 올린 광주비엔날레 '마당' 순항

현지서 창설 30주년 특별전

각계각층 미술계 인사 등 방문 담론장 '마당 다이얼로그' 진행 전공생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

베니스에서 댕 올린 광주비엔날레 30주년 기념 아카이브 특별전 '마당: 우리가 되는 곳(Madang: Where We Become Us)'이 국제 미술계의 관심을 받으며 순항 중이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지난 4월 20일 이탈리아 베니스 일 지아르디노 비안코 아트 스페이스(Il Giardino Bianco Art Space)에서 개막한 '마당: 우리가 되는 곳' 전시에서 현재까지 1만여명이 다녀가면서 '광주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베니스 현지 대학 카포스카리(Ca' Foscari University)와의 인턴십 프로그램도 7월 9일부터 시작되면서 현지와의 소통도 이어가고 있다.

●세계 관람객과 광주비엔날레 역사·가치 깊은 공감

'마당: 우리가 되는 곳' 전시에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인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 제59회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인 세실리아 알레마니(Cecilia Alemani), 제60회 베니스비엔

날레 한국관 공동예술감독인 야콥 파브리시우스(Jacob Fabricius) 등 각계각층 미술계 관계자를 비롯해 세계 각지 관람객이 방문하면서 광주비엔날레 역사와 가치, 지향점에 대해 인식 및 공감하는 장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8일 개막식에서는 광주 공동체를 상징하는 '주먹밥'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합지박에 담겼던 주먹밥을 재현해 관람객들과 함께 나눠먹으며 30년 전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환기하는 자리가 되었다. 실제 전시장에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소장 유물인 '양은 합지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양은 합지박'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어머니들이 시민군에게 나눠 주기 위해 만든 주먹밥을 담았던 합지박으로 광주 공동체를 상징한다.

●베니스 현지 인턴십 프로그램 7월 9일부터 개시

베니스 현지와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한국 문화 및 예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광주비엔날레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인턴십 프로그램은 7월 9일 시작돼 11월 24일까지 운영된다.

지난 5월 선별 과정을 거쳐 베니스 카포스카리 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참여 중이며, 인턴십에 참가한 학생들은 영어



지난 4월 18일 베니스 현지에서 광주비엔날레 30주년 기념 아카이브 특별전 '마당: 우리가 되는 곳'의 연계 프로그램(마당 다이얼로그)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재)광주비엔날레 제공

와 이탈리아어로 진행되는 도슨트 프로그램 및 현지 코디네이터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이외에 '마당: 우리가 되는 곳' 전시 참여작가 조사, 작품 및 프로그램 비디오 제작 등과 관련된 창의적인 활동이 이어진다.

●담론 형성 전시 연계 프로그램 매달 지속적으로 마련

'마당: 우리가 되는 곳' 전시와 연계된 담론 형성 프로그램인 '마당 다이얼로그'(Madang Dialogues)가 베니스를 시작으로 서울, 광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

면서 광주비엔날레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베니스에서 개막과 연계해서 '풍화하는 비엔날레?'라는 주제로 광주비엔날레 과거와 현재를 점검하고, 어떻게 기억되고 아카이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논의가 전개됐다. 또한 광주비엔날레가 문화적 맥락의 변화에 적응하고 시대적·사회적 문제를 깊이 다루기 위한 방법론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5월 20일에는 '마당 다이얼로그'

의 한 섹션인 '풍화하는 비엔날레?, 못 다한 이야기'가 서울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비엔날레 의미를 비롯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추후 11월까지 광주와 서울 등지에서 '마당 다이얼로그'가 진행될 예정이다.

●영상으로 만나는 '광주비엔날레 30년'

민주, 인권, 공동체 정신의 열린 담론을 제안하는 광주비엔날레 30주년 기념 아카이브 특별전 '마당: 우리가 되는 곳'은 광주비엔날레가 시각 예술을 통해 수행해 온 '마당'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전시다.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축적된 아카이브 자료들과 소장품 등을 선보이며 광주비엔날레의 동시대적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전시를 위해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던 역대 기획자와 작가 인터뷰 다큐멘터리 '광주비엔날레, 30년의 시선'이 전시장에서 상영되고 있으며, 해당 다큐멘터리는 광주비엔날레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마당: 우리가 되는 곳' 전시가 베니스 현지에서 호평을 받으며 순항 중에 있다"며 "이 전시를 통해 광주비엔날레 30주년을 함께 나누는 '마당'이자 다시 한번 '우리가 되는 특별한 경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운영하는 '2024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스' 참여자들이 창작 스튜디오에서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ACC 제공**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스 활동 본격화

아시아 등 9개국 8개 팀 입주 아트&테크 분야 창·제작자들 인공지능·인간·다중우주 주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 따르면 '2024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스' 참여자 12명이 입주를 마치고 31일부터 프로젝트 창작활동을 시작한다.

ACC는 지난 2015년부터 창의적 표현의 경계를 확장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다분야 전문가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레지던스 창·제작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ACC는 지난 4월 '아트&테크놀로지' 분야 창·제작자들을 대상으로 '2024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스' 참여자를 국제 공모했으며, 지난 6월 한국,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융·복합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예술가, 연구자, 엔지니어 등 9개국 8개 팀(12명)을 최종 선발했다.

참여자들은 '인공지능·인간·다중우주'를 주제로 다각적인 연구와 함께 리얼타임 엔진, 3D프린팅, 로보틱스, 인공지능, 확장현실 등 다양한 기술과 매체 기반의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창·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은 31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프로젝트 소개, 참여자 및 관계자 간 네트워킹, ACC 및 ACC 창작 스튜디오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어 전일빌딩, 녹두서점 오토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장소를 방문하는 일정도 소화한다.

본격적인 창·제작 프로그램은 8~11월 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ACC는 △주제 워크숍 및 강의 △프로젝트의 콘셉트와 제작 연구방법을 구체화하고 분석하는 기술 워크숍 △전문가 매칭과 함께 ACC 창·제작센터의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참여자들의 프로젝트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9월 말에는 ACC의 융·복합 예술 축제인 'ACT 페스티벌 2024'와 연계해 열리는 크리에이터스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의 프로젝트 아이디어와 중간 제작과정을 일반 시민과 관련 전문가에게 공유한다. 레지던스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오는 11월 22일 개최되는 오픈스튜디오 쇼케이스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도선인 기자

'양림동 소녀' 임영희 감독 초청 포럼

오늘 광주시립미술관 상영 및 감독과 대화

광주시립미술관은 2024 다섯 번째 미술관 포럼으로 영화 '양림동 소녀'의 임영희(사진) 감독을 초청해 '5·18민주화운동과 여성'에 대해 논한다. 포럼은 31일 오후 2시 광주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5·18민주화운동에서 시민군이었고 이후 시민운동가로 활동한 임영희 감독을 초청한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듣고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영화 '양림동 소녀'를 감상할

예정이다. 임영희 감독의 발제 후 참여자들과 함께 자유로운 토론 시간도 이어진다.

임영희 감독은 56세에 급성 뇌졸중으로 신체장애를 겪게 되는데, 이후 감독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자전적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하고 이를 모아 '양림동 소녀 나의 오월이 시작되는 곳'을 출판했다. 이후 이를 토대로 아들 오재형 작가와 애니메이션 '양림동 소녀'를 연출했다.

애니메이션 영화 '양림동 소녀'는 서울 독립영화제, 광주여성영화제, 서울장애 인권영화제, 광주독립영화제 등 다수의



영화제에 초청된 바 있고, 제15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 한국단편경쟁 대상, 제10회 춘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심사위원상, 제24회 제주국제장애인권영화제 대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 관장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감독의 생생한 역사의 증언을 통해 5·18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매달 1회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과 문화예술전문가 등을 초청해 2024 미술관 포럼을 열고 있다. **도선인 기자**

이강하미술관 '북극 탐험대' 내달 9일까지 모집

여름방학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광주 남구 이강하미술관은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진행하는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2024 어린이 북극 탐험대' 참여자를 다음달 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동안 전시와 교류사업을 통해 캐나다 북극에 사는 이

누이트 예술을 선보인 이강하미술관이 이그 연장선 상에서 마련한 어린이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8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매주 주말 총 10회 걸쳐 북극에 대해 상상해본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이다. 프로그램은 1기(오전 10시~오후 1시)와 2기(오후 3시~6시)로 나눠 진행된다. 각 기수마다 10명씩 활동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신청은 이강하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접수 확인 전화(062-674-8515)는 필수다.

특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양림동 일대는 오는 9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본 전시가 개최될 예정이라 참여 어린이들은 현대미술의 장을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다. **도선인 기자**

